



# 서경대신문

1955년 5월 23일 창간  
발행인·김범준 / 주간·방미영  
편집장·김나연 / 인쇄인·발해기획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02713)  
전화·940-7257 / www.skpress.org

사회 >> 3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

기획 >> 4면  
대학언론의 자유는 어디에?

현장르포 >> 5면  
한국을 덮친 우울의 그림자, 우울증을 마주하다

제589호  
2025년 4월 30일(수)

## 새로운 혁신 서경대학교 FYP, 자세히 들여다보니

서경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전공 선택을 유예한 '무전공제' 신입생 제도를 도입하며, 체계적인 전공 탐색과 학생 맞춤형 진로 설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문, 사회, 공학 계열 학과는 미래융합학부 1, 2와 자유전공학부로 개편돼 운영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입생이 1년 동안 본인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히 미래융합학부 1, 2에 소속된 학생들은 FYP 포인트(First Year Program Point) 70%, 모의 토익 20%, 필수 교양 과목 성적 10%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전공을 배정 받는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성적 기준 없이 14개 전공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FYP 포인트 제도는 학생이 전공

선택 전 1년간 학교생활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얼마나 성실히 참여했는지를 수치화해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는 7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필수 이수 프로그램과 선택 이수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필수 이수 프로그램에는 전문가와의 만남, SKU 공연 체험, FYP 선배 자문 단과의 상담 등이 포함되며, 최대 55점을 획득할 수 있다. 여기에 계절별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 선택 이수 프로그램을 통해 나머지 점수를 채워야 한다.

FYP에는 감점 제도도 적용된다. 필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별로 점수가 차감되며, 전공 수요 조사를 미시할 경우 회당 1점씩 감점된다. 또한, 1학년 동안 수강한 교과목에서 F 학점이 발생하면 과목당 5점이 차감된다.

모의 토익은 연 4회 시행되며, 가장 높은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된다. 모든 시험에 반드시 응시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1회는 필수 응시해야 한다. 필수 교양은 1학기 '라이프케어 디자인' 과 '커뮤니케이션', 2학기 '창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미래 리더를 위한 대인관계' 과목이 포함되며, 백분위로 환산한 성적을 10점 만점으로 변환해 반영한다.

만일 성적 등급에 따라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복수전공 및 부전공 제도도 마련돼 있다. 복수전공은 해당 학부 내에서 42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부전공은 미래융합학부 전체를 대상으로 30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과 지원도 강화됐다. 1학년 동안 학생들은 해당 전공 교수진이 직

접 전공을 심도 있게 소개하는 '전공 탐색 세미나'와 함께, 분반별 담당 FYP 디렉터와 학기당 2회 멘토링 면담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충분히 고민하고 적합한 전공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다만, 미래융합학부 소속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과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속감 형성과 휴식처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경대는 은주관 내에 'MD 카페'를 조성해 FYP 선배 자문단과의 만남 및 학생 간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다.

실제 미래융합학부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1학년 동안은 전공 수업이 없어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FYP 프로그램 참여

를 통해 진로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학교생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돼 이점도 존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반면 B 학생은 "대학에 입학하면 단순히 학점만 채우고 자유로운 생활을 기대했다. 하지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점뿐 아니라 학교 내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해서 고등학교 4학년 과정을 밟는 것 같아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융합대학의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1년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공 선택의 기회를 신중히 제공함으로써 진로 결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

구분	이수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FYP	포인트	비고
교수	필수	FYP 인문기초의 만남	인문사회과학, 미래융합학부 전공자 초청 강연	10	10	특정 과목 선택
	선택	FYP SKU 공연 참여(가제)	공연을 통해 전공 관련 공헌	10	10	공헌활동 후 만족도(가제)
	선택	FYP 직업역량개발(가제)	MAST, K-MDOC 연계 전공 학기 프로젝트	2	2	교사 평가 시
	선택	FYP 전공인문 프로젝트	K-MDOC 연계 전공 학기 프로젝트	5	5	성적표에 1년 만족도
	선택	FYP 전공으로 최소 30점(가제)	성적표에 실려있음, 해당 과목 배우기, 자유 수강	5	5	전공 선택 후 성적표
	선택	FYP 전공으로 최소 30점(가제)	성적표에 실려있음, 해당 과목 배우기, 자유 수강	5	5	전공 선택 후 성적표
대학원생	필수	FYP Extended OISC 선배자문	계열별 선배 자문 단과의 자유 질문	3	3	OISC 일차 후 상담
	선택	FYP FYP 선배자문	성적표에 실려있음, 계열별 선배자문	10	10	성적표에 실려있음
	선택	FYP 2025 Major Design Camp	FYP 선배자문단 멘토링 프로그램	10	10	성적표에 실려있음
	선택	FYP 동아리활동	동아리 가입 및 활동	5	5	1차 성적 기준 시
	선택	FYP 지역봉사활동	지역봉사활동	5	5	지역봉사
	선택	FYP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5	5	자원봉사
사회봉사	필수	FYP FYP 선배자문	계열별 선배 자문 단과의 자유 질문	3	3	OISC 일차 후 상담
	선택	FYP FYP 선배자문	성적표에 실려있음, 계열별 선배자문	10	10	성적표에 실려있음
	선택	FYP 2025 Major Design Camp	FYP 선배자문단 멘토링 프로그램	10	10	성적표에 실려있음
	선택	FYP 동아리활동	동아리 가입 및 활동	5	5	1차 성적 기준 시
	선택	FYP 지역봉사활동	지역봉사활동	5	5	지역봉사
	선택	FYP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5	5	자원봉사
합계	필수	FYP FYP 선배자문	계열별 선배 자문 단과의 자유 질문	3	3	OISC 일차 후 상담
	선택	FYP FYP 선배자문	성적표에 실려있음, 계열별 선배자문	10	10	성적표에 실려있음
	선택	FYP 2025 Major Design Camp	FYP 선배자문단 멘토링 프로그램	10	10	성적표에 실려있음
	선택	FYP 동아리활동	동아리 가입 및 활동	5	5	1차 성적 기준 시
	선택	FYP 지역봉사활동	지역봉사활동	5	5	지역봉사
	선택	FYP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5	5	자원봉사

## 서경대 풀잎봉사단 2기 출범... 열정으로 뭉친 118인의 시작

지난 3월 20일, 서경대학교 헤인관 시청각 1실에서 학생처 소속 공식 봉사단인 '풀잎봉사단' 2기의 발대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봉사단과 운영진 소개를 시작으로, △봉사단 안내 사항 전달 △2기 단원 구성 브리핑 △1기 활동 보고 △성북구 대학생 기획 봉사 참여 독려 △교내 환경 정화 활동 △Q&A 및 조별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진행은 풀잎봉사단 2기 회장단인 봉사단장 윤다인(경영 22) 학우와 부단장 김나연(아동 22) 학우가 맡았다.

브리핑을 마친 뒤에는 단체 조끼를 착용한 단원들이 조별로 나눠서 서경대 캠퍼스와 인근 산책로에서 쓰레기를 줍는 교내환경 정화 봉사를 시행했다. 이후 다시 시청각실로 돌아와 조별 활동이 이어졌으며, 빙고 4줄을 가장 먼저 완성한 조에게는 보조배터리 등의 상품이 제공됐다.

**[단장 인터뷰]**

**Q. 풀잎봉사단 2기로 출범한 소감은.**

**A. 풀잎봉사단 2기의 단장으로 활동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1기 단원으로 활동한 뒤 2기 단장을 맡게 되면서, 단일 한 분의 기대와 관심을 체감하며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활동을 통해,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단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기수는 단원들의 열정과 진심 어린 태도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운영진에게 건의해 주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봉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은 단장으로서 책임을 다짐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풀잎

봉사단의 단원들과 함께 성장하며, 이 경험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기를 기대합니다.

**Q. 1기에 비해 2기 인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A. 1기 활동과 봉사단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작해, 모집 기간 동안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지원자들의 문의에 신속히 응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한 올해 새롭게 신설된 FYP 제도를 통해, 봉사단 활동으로 봉사 관련 포인트 5점을 채울 수 있게 되면서 1학년들의 자발적인 지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 결과 100개 이상의 지원서가 접수됐고, 1기 연장단원과 2기 신규 단원이 더해져 총 118명의 인원으로 2기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Q. 앞으로 기대되는 점은.**

**A. 무엇보다 단원들의 자발적인**



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질 봉사활동이 가장 기대됩니다. 다양한 전공과 관심사를 가진 단원들이 모인 만큼,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는 봉사 경험이 개인에게도, 봉사단 전체에도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올해는 외부와의 협업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려대학교 '소셜리' 팀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비롯해, 총학생회와의 협력, 굿네이버스와 대학 연계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원들에게 더 넓은 봉사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풀잎봉사단이 서경대학교를 넘어 성북구 지역사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단순한 일회성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꾸준한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봉사를 실천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점퍼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발표... 학우들의 감각 빛나**

지난 4월, 교내에서 열린 학교 점퍼 디자인 공모전 최종 결과가 학우들의 많은 관심 속 공개됐다. 총 네 점의 수상작이 선정됐으며, 영광의 대상은 디자인학부 학우에게 돌아갔다. 또한 광고홍보콘텐츠학과, 디자인학부,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학우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상했다. 심사는 △상징성(25점) △심미성(25점) △적합성(25점) △독창성(25점)의 기준으로 이뤄졌다. 또한, 최종 수상작 선정에는 내부 심사 외에도 재학생 대상 구공설 설문조사 투표도 진행돼 학우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대상을 수상한 디자인은 검정 톤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된 디자인이며 제작 과정에서 수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전은 많은 학우들이 학교에 대한 상징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됐으며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김규민 수습기자  
(kyum7158@gmail.com)



우리의 청춘은 지금, 서경의 봄 속에 있습니다

# 서경대 기숙사, 지방 학생 탈락 후 추가합격... 학생들 몰랐던 사정은?



서경대학교 기숙사는 신입생, 편입학 예정자와 재학생을 분류해 기숙사 대상의 모집을 진행한다. 하지만 입주 신청과 발표 시점이 타 대학에 비해 늦어, 학생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 기숙사 합복 여부를 알기도 전에 자취방 계약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숙사 발표 전부터 본교 에브리타임 새내기 게시판에는 “부산도 떨어졌다”, “충남은 안 된다”

는 결과 발표에 대부분 자취방을 이미 구한 상태였다.

결국 일부 경기도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발생했다. 기숙사 추가 합격은 3월 중순까지도 이어졌고, 일부 2인실은 입주자가 없어 결국 공실로 남았다.

작년 본교는 대략 50명의 기숙사 장기 입주생을 모집했으며, 이후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공지되지 않아 많은 학생이 아직 폐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교환학생, 군사학과 학생 등 외의 모집 인원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정확한 기숙사 내부 상황을 알기 위해 학생처 방화영 과장님을 만나봤다.

**Q. 작년과 올해, 대략 몇 명이 기숙사에 추가 합격 됐는지 궁금합니다.**

**A.** 4인실 기준으로 작년 1학기에는 재학생 4명, 신편입생 1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올해 1학기에는 풋살장 방향은 재학생 14명, 신편입생 10명, 주차장 방향은 재학생 1명, 신

편입생 8명 추가 합격했습니다.

**Q. 기숙사 추가 합격이 올해만큼 많이 발생했던 적이 있나요?**

**A.** 올해는 특히 외국인 유학생 비자 거절 및 모집 인원 감소 등으로 여석이 재학생 생활관 최초 선발 이후 뒤늦게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남은 자리가 재학생에게 추가 배정되며 최종적으로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입학 유학생의 생활관 입주 여부가 2월 말에 확정돼, 추가 여석이 발생한 시점에 연락해도 원거리 지방 학생의 경우 이미 자취방을 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별/사업별 구분해 배정 후 입주공고를 안내하기에, 부득이 추가 여석이 뒤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Q. 기숙사 선발 인원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A.** 오히려 2학기 모집의 경우 미충원으로 인해 추가 모집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수용인원 부족으로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2학기 은주관 5동 여자 생활관 6~7층(1~2인실)을 증축해 수용 인원이 131명 늘어난 것과 같은 지

속적 개선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생활관 신/증축은 단기간에 계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처별/사업별 적정 수용인원을 산정해 균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생 수요 및 통계 등에 따라 관련 부처별 여석 배정을 재검토해 최대한 수용인원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기숙사 모집 일정을 앞당기거나 결과 발표를 빠르게 낼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신편입생의 경우 신편입학 최초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시기에 맞춰 생활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의 경우 보통 2월 초에 모집합니다.

너무 이른 모집은 일단 신청해 놓는 허수 인원으로 인해 정작 생활관이 필요한 원거리 지방 학생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생활관 모집 일정 및 남은 여석 등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계획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정소영** 수습기자

(sozero1119@skuniv.ac.kr)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오늘 학식 뭐지?”

총학생회 한빛, 한림관 학식 알림이 시행



▲ 출처 :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총학생회 한빛이 지난 3월 4주 차부터 한림관 학식 메뉴를 사전 안내하는 ‘학식 알림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에는 온라인에서 공식적으로 학식 메뉴가 안내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함이 존재했다. 메뉴를 확인하려면 이미 식사를 한 학생이 정보를 공유해야만 알 수 있었다. 한빛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림이 제도를 시작했다.

카드 뉴스 형태로 메뉴를 직관적으로 안내해 학생들이 미리 식단 확인을 돕도록 편의를 높였다. 공지는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와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내된다.

학식 알림이 제도 도입 이후

시물에 다수의 ‘좋아요’ 및 댓글이 달리는 등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드디어 에브리타임에도 메뉴가 올라와 너무 좋다”, “직접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격이나 제공 시간 등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며 보완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도 도입 이후 메뉴 확인이 쉬워졌다는 반응이 있었으며, 일부 학생들은 가격과 운영 시간 등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 새로 신설된 교양 필수 과목.. 신입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올해 서경대학교는 미래융합학부 1, 미래융합학부2, 자유전공학부를

새로 신설했다. 세 학부 모두 핵심 역량 교양 필수 1학기에는 △멘토링 1 △전공 탐색 세미나 △Communication △Life Care Design △College English1을 이수해야 한다. 2학기에는 △멘토링2 △미래 리더를 위한 대인관계 △진로 설계 세미나 △창의 문제 해결 프로젝트 △College English2를 이수해야 한다. 나머지는 기초 학문 교양 선택으로 △인문과 예술 △사회와 세계 △과학과 기술 △미래와 융합 △인성과 체육 각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돼 있다. 2~3학점으로 이뤄져 있으며, 총 15학점을 이수하면 된

다. 기초 학문 교양 선택 중 60분반은 미래융합학부1, 미래융합학부2, 자유전공학부 대상으로 따로 개설되기도 했다.

멘토링1(1학점)과 전공 탐색 세미나(3학점)는 절대평가 강이다. 멘토링1은 각 분반의 담당 교수님과 일정 조율 후, 한 학기 두 번씩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공 탐색 세미나는 주차마다 선택 가능한 전공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전공 내용과 전공 관련 직업을 탐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Communication(2학점), Life Care Design(2학점), College English1(3학점)은 상대평가 강의

로 자기 계발을 위해 필수적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중 College English1(World Wide English1, Global English1)은 공인 시험 TOEIC 700점 이상 달성 시 교양과목 이수면제 제도를 통해 강의를 이수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수면제를 받은 과목은 학점 및 성적 부여되지 않으니 총 취득학점 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3주차에는 전공 탐색 세미나와 Communication 중간고사로 학교 주관 공식 MT를 가기도 했다. 본 MT에서는 성취력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의 강의와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다. FYP 필수 활동일 뿐만 아니라 출결에도 포함돼 기존 MT와는 다르게 필수 참여다.

핵심 역량 교양 필수 교과과목의 성적은 2학년 전공 선택에 10% 반영된다. 교양과목과 별개로 전공 선택 시 FYP 포인트 70%, 모의 토익 20% 또한 반영되기에 올해 신설된 미래융합학부1, 미래융합학부2, 자유전공학부의 부담감이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송정아** 수습기자

(songjeonga0328@skuniv.ac.kr)

# 개선된 2025 늘봄학교, 허수연 교수를 만나보다

서경대학교가 ‘2025 늘봄학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2월 26일 체결했다. 서경대학교 문화예술센터는 작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하며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늘봄학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서경대 문화예술센터 허수연 교수를 만났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을 가르치고 있는 허수연 교수입니다.

**Q. 늘봄학교의 도입 취지와 핵심 목표는?**

**A.** 늘봄학교는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부담감, 사교육비 부담을 위해 도입된 정책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즐거운 돌봄 시간을 보내도록 하며 동시에 학습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성격의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에 대해 평가한다면?**

**A.** 초반에는 행정, 운영, 교육의 측면에서 기존의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프로그램들과 늘봄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함께 적용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보완돼야 할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며 잘 정착되고 있습니다.

**Q. 늘봄학교가 사교육이나 돌봄 격차 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나요?**

**A.** 네, 지금 현저히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출산율이 약간 올라가면서 출산, 양육,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향상됐습니다. 늘봄학교는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더라도 학교 내에서 안심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입니다. 이에 사교육이나 돌봄 격차 감소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 교사나 학교 측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은?**

**A.** 늘봄학교는 학교마다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늘봄교실을 지원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 일반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교실을 빌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늘봄학교 강사 이외의 학교 교사가 교실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늘봄학교 교실이 모든 학교에 마

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는.**

**A.** 본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교육을 위해 교수자, 기획자, 개발자로서 프로그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채**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 학생 참여 활성화 위한 첫걸음

제1회 비교과 프로그램 알림제 개최



2025학년도 무전공 신입생들과 서경대학교 재학생들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산학교육원은 관련 부서들과 협력해 ‘비교과 프로그램 알림제’를 개최했다. 알림제는 3월 24일(월)부터 25일(화)까지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운관 앞 스크린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이번 알림제에는 창의산학교육원,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캠퍼스타운사업단, 학생&사회봉사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교수학습원까지 총 6개 부서가 참여했다. 부스 앞에서 각 부서에 대한 소개와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가 자세히 담긴 리플렛이 배부됐다. 학생들은 리플렛을 들고 각 부스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스탬프를 하나씩 받을 수 있었다. 모든 부스를 방문해 6개의 스탬프를 받은 학생에게는 커피 쿠폰이 증정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필자는 직접 비교과 프로그램 알림제에 참여해 보았다. 가장 좋았던 점은 다양한 부스를 자유롭게 둘러 각 부서의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부서별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필자에게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는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현재 4학년인 필자는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 방문했을 때, 취업 컨설팅 및 현장 실습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번 비교과 프로그램 알림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여러 프로그램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였다. 비교과 활동이 다소 낯설고 막연하게 느껴졌던 학생이라면,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방향성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최소정** 수습기자 (2022215046@skuniv.ac.kr)

# 한 눈에 보는 이슈

## 정치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

## 경제

MBK의 무리한 인수, 홈플러스 회생의 도화선 되나

## 사회

포천 전투기 오발 사고, 현역 병사와 군사학도의 목소리를 듣다

## 문화

모르던 사이 산불로 문화재 피해... 문화재청 '비상'

## 연예

백종원 나비효과... '남극의 셰프' 무기한 연기부터 더본코리아 고용부 조사 시작

## 스포츠

'한국판 아테바요르' 정승원, 친정팀 대구에 비수

자세히 보는 이슈

#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인용... 헌정사상 두 번째 파면



▲ 출처 : 한겨레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이 만장일치 인용으로 인해 파면됐다.

2017년 3월 10일 11시, 같은 시각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장일치로 파면된 사실이 있다. 이로써 보수 진영 대통령의 2연속 만장일치 파면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읽는 22분 동안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측의 위헌, 위법 사실을 일컬었으며, 부정선거

의혹과 호소 목적의 계엄 등 피청구인이 주장한 모든 변론 사실을 불인정했다. 헌법에 명시된 통치구조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계엄을 진행한 사유가 결정적이었으며, 마지막으로 12·3 계엄령이 계엄법에 명시된 명분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파면 주문의 순간 또한 지난 2017년과 비슷한 장면이 자주 나왔다.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헌재 방청객들 사이에서

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탄식이 나왔으며, 헌재 앞 탄핵 찬성 측 시위대 중 한 명은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계엄을 진행한 사유가 결정적이었으며, 마지막으로 12·3 계엄령이 계엄법에 명시된 명분으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가 파면 주문의 순간 또한 지난 2017년과 비슷한 장면이 자주 나왔다.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헌재 방청객들 사이에서

이버와 카카오의 서버가 다운되는 일도 있었다.

선고 직후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께 죄송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극복에 앞장서주시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양측 모두 국민의 분열에 우려를 표하며 화합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밝혔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6월 초까지 2개월가량 대행직을 더 수행하게 됐다. 이로써 한 대통령의 최대 과업은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2개월가량 정국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힘쓰는 것이 됐다.

해당 탄핵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추대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운동의 조짐이 보였으며 정권교체의 기회를 잡은 민주당은 조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을 선출했다. 분열한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보수가 합쳐져 정권교체를 막을 수 있을지 미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며 심정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내부에서 분열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안보, 경제 면에서 큰 위협을 받는 만큼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것으로 보인다.

전세찬 수습기자

(jeonsechan12@skuniv.ac.kr)

# MBK의 무리한 인수, 홈플러스 회생의 도화선 되나



▲ 출처 : SBS 뉴스

국내 대형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4일 홈플러스는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하며 향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이러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된 원인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대주주 MBK 파트너스의 무리한 기업 경영이다. 2015년 MBK 파트너스는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의 모든 지분을 약 7조 2천억 원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4조 원 이상의 자금을 차입금으로 홈플러스 매장 140여 개를 담보로 대출받으며 마련했다. 이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야기했고,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은 2014년 151.8%에서 2024년 1408.6%까지 급등했다.

이후 MBK 파트너스는 부채를 갚는 방법으로 20여 개의 점포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급전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홈플러스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원금 회수에 치중한 지속 가능성이 없는 경영 방식이었기에 기업 실적이나 상표 이미지 개선이 끝수 없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업 부진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홈플러스는 지난 4년간 수천억 규모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 소비자들의 쇼핑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집중되면서 쿠팡과 같은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반면, 홈플러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시장에 치중한 유통사들은 영업 경쟁에서 도태됐다. 매장 매출이 감소하고 임대료와 인건비가 인상되는 상황에서 홈플러스의 수익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에 비해 대형마트의 비중이 크다고 지적 받는 상황에서 온라인 시장의 성장은 홈플러스의 지속적인 적자와 경영 악화를 야기했다.

이러한 홈플러스의 위기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이루고 있다. 2015년 국민연금은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환전환 우선주(RCPS)에 약 6천억 원을 투자하며 공동 투자자로 참여했다. RCPS란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약 1조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회수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RCPS는 통상적으로 회생 절차에서 변제 순위가 낮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구조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투자 판단 및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될 전망이다.

인하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A 씨는 인수 자금의 무리한 조성이 문 제임을 지적하며, ‘현행법률상 합법 이어도 사모펀드 인수 시 차입금의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 경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피력 했다. 기업의 근원 가치 향상보다 단기적 이익에 치중한 인수 과정에서 의 부실은 자칫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몰락과 같은 ‘승자의 저주’를 넘어 서 부실의 연쇄화가 일어날 수 있다. A 씨는 이를 지적하며 상법 개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되야 함을 주장했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ing@skuniv.ac.kr)

# 포천 전투기 오발 사고, 현역 병사와 군사학도의 목소리를 듣다



▲ 출처 : 포투뉴스

지난 3월 6일, 경기 포천 일대에서 한미연합훈련 도중 폭탄 8발이 오폭되며 중상 2명, 경상 13명으로 총 1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번기의 잘못된 좌표 입력과 2번기 조종사의 이어진 발사로 KF-16 2대가 동시에 오폭 사고를 일으켰다. 투하된 폭탄은 일명 ‘명령구리 폭탄’으로 불리는 MK-82로, 지면 착탄 시 형성되는 폭파구는 깊이 3m, 직경

10m에 달한다. 정밀 폭탄의 탄체로 사용되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MK-82는 우택, 성당, 차량을 모두 파손시켰다.

이에 4월 29일, 경기 포천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긴급 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해 ‘포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비상기획관, 군 관계자, 포천시의회 의장, 피해지역 주민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90분간 진행됐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군 사고 재발 방지를 정부에게 주문하는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서경대 신문사 취재부가 청주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공군 병사들을 만나 포천 전투기 오발 사고에 관한 생각을 들어봤다. A 병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서 “군 전체의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하나의 사고로 터져 나온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며 군대 전반의 반성과 고찰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밝

혔다.

B 병사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군의 작은 실수와 안일함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뻔한 사고”라며 “책임자의 부족한 검토와 조종사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점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살상 무기를 다루는 만큼 작고 소소한 일에도 신중을 기울이고 견고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하는 부서와 장비를 다루는 부서에서도 오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주는 교육을 진행한다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해당 사고를 보고 군사학과 학생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이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차 준수와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며 “향후 장교로서 복무하게 된다면 작은 훈련 하나에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항상 원칙을 철저히 지켜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고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 구역이 되면서 약 5,000명의 주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일상회복 지원금이 지급됐다. 4월 30일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종료됐으며 해당 사고 수습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관련 부서에서 지속해서 주민들의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민채 기자

(minchaekim4063@skuniv.ac.kr)

# 모르던 사이 산불로 문화재 피해... 문화재청 ‘비상’

올해 3월 중순부터 이어진 대형 산불이 인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소중한 문화유산에도 큰 피해를 남겼다. 산불은 전국적이었지만, 특히 경상북도 일대를 중심으로 확산한 산불은 사찰과 불교문화 유적지를 강타해 국가지정문화재 11건과 시도 지정문화재 19건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것은 국가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연수전’이다. 연수전은 조선시대 때 임금이 문관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건물로, 문화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큰 유산이었으나 이번 화재로 완전히 전소됐다.

그러나 모든 문화재가 피해를 본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산불 피해가 잦았던 지역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비가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 대표적인 예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주왕산 국립공원’이다. 이곳은 시민들과 당국의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문화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이에 관련해 국가유산청(前 문화재청)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대응이 문화재 보호에 실질적인 힘이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번 산불 피해를 계기로 연예인과 정치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고무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기부해 동참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관심들은 대개 ‘유형’으로 변질 뿐 문화재의 보존과 같은 더 중요한 점에는 초



▲ 출처 : 서울경제

점이 맞춰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개 절과 같은 종교 문화재는 산 인근에 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방화벽이나 이동식 소화 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지구온난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발생 빈도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는 각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다. 문화재보호법이 문화 유산법으로 개편이 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법령만 만들어졌을 뿐 실질적으로 어떻게 문화재를 보호할지는 지방자치단체나 시, 도에 의해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주왕산 국립공원과 같이 보호받는 문화재가 존재하는 반면, 안전장치와 대비책의 부재는 높은 문화재는 이러한 화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번 피해를 계기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전국 단위의 예방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번 훼손된 문화재는 완전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방화벽 설치, 소화 장비 확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재의 피해가 앞으로 급변하는 기후에 따라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 대책 수립과 모든 국민에게 문화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심을 재고할 대책이 필요하다.

전세찬 수습기자

(jeonsechan12@skuniv.ac.kr)

# 언론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대학언론의 자유는 어디에?

최근 수년간 전국 각지의 대학언론들은 다양한 위기를 직면해 왔다. 그중에서도 대학 당국의 대학언론에 대한 편집권 침해나 재정 지원 중단 등의 탄압은 대학언론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학 사회의 숙원이던 대학언론법이 국회에서 재발의되

며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태생적으로 대학 구조 내에 종속돼 구조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대학언론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다. 오늘날 대다수의 대학언론은 총장 또는 대

학 본부의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대학언론 유지에 필수적인 학교 지원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언론 역시 학교의 눈치를 보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대학언론법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측이 대학언론

의 자율적인 편집과 운영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대학언론법이 제정된다면, 학생들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위축돼 있던 대학언론 활동이 활성화돼 보도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내외의 다양한 소식을 전

하는 건강한 대학언론의 순기능이 강화돼 나타날 것이라고 짐작한다. 반면 보장된 자유에 뒤따르는 다양한 책임 또한 존재할 것이다. 또한 학생 사회와 대학언론은 뿔 수 없는 관계다. 건강한 학생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면 이 기사를 읽 어보길 바란다.

## 다사다난한 길을 거쳐온 대학언론법의 역사와 그 필요성은?

**정호호 민주당 의원의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9조(대학언론)**

- 1 학교는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알 권리 보장과 의견 수렴 및 대학의 민주적 인연 형성 등을 위하여 대학언론(이하 '대학언론'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2 대학언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의 발행 및 편집
  - 2 그 밖에 대학언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3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 4 대학언론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출처 : 뉴스토미도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학언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입법 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던 와중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집행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작하며 법제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이들의 노력은 제21대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결실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법안은 많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 처분을 당했다.

이후 2024년 11월 22일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호호 의원이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재발의된 대학언론법은 운영위원회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 지원을 명시하는 조항 등이 삭제됐다. 정호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과거 법안과 달리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제외했다"고 말했다. 즉 대학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골자는 같지만, 이번 개정안은 재정적 독립보다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논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처럼 대학언론법은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왔다. 그렇다면 대학언론법은 왜 필요할까? 상술했듯이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편집 자율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대학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부당한 개입이 없는 언론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대학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고 대학언론의 감시 기능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자들이 유·무형의 압력에서 벗어나면서 질 좋은 콘텐츠가 나타날 것이고 건강해진 대학언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대학 공동체의 성숙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학언론의 순기능을 촉진하기 때문에 대학언론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물론 대학언론법이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만큼 그만큼 책임 또한 뒤따라야 한다.



## 언론인의 시선으로 본 대학언론법의 가치

- 방미영 교수님 인터뷰 -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교수이자 서경대 신문 주간을 맡고 있는 방미영입니다. 학부 시절 학보사 기자를 시작으로, 이후 [언론과 비평사] 문화부 기자, KBS 교양제작국 방송작가 등 신문과 방송 현장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미디어 생태계를 깊이 이해하게 됐으며, 대학언론이 지닌 사회적 의미와 그 잠재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Q. 대학언론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와 대학언론법의 필요성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A. 대학언론법은 법제화의 문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언론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지식과 비판, 실험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대학언론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직 성장 중인 학생 언론의 미숙함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정론을 펼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언론법은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학생 기자들이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Q. 대학언론이 법적인 규제를 받을 때, 어떤 종류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자유와 책임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자유가 방종이나 무분별한 보도로 이어질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대학언론도 마찬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되, 기본적인 책임감 있는 태도가 병행돼야 합니다.

Q. 대학언론법이 학생기자들에게 어떤 교육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대학언론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책임 있는 일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학생 언론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공익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죠. 이런 제도는 학생 기자들이 실제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체험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대학언론법이 시행된다면, 향후 언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언론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는 한편, 허위 정보와 조작된 콘텐츠로 혼란도 커졌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매체 이해력이 더욱 중요해져, 책임 있는 언론의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언론법의 시행은 학생 언론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복합적인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언론인을 양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언론법은 우리 사회의 매체 이해력 수준을 향상하고, 왜곡되지 않은 건강한 정보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언론법 발의 논의는 학생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상징적 출발점으로, 학생 기자들에게 분명한 희망의 신호탄이다. 그동안 대학언론이 직면해 온 부당한 간섭과 제약의 벽을 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 그러나 법이 생긴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롭게

건강한 언론 환경이 조성되지는 않는다. 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 이 울타리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스스로 품격을 높이고 내부 윤리를 강화하며, 취재력을 끌어올리는 내부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선언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에서 비롯된다. 결국 대학언론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법이 만들어진 뒤에라도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진정한 변화란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들의 실천으로 완성되기에 학생 기자들은

'언론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이라는 방패를 얻었다면, 그 방패를 등에 업고 숨는 것이 아니라 그 방패를 들고 더 넓은 세상에 당당히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언론의 자유는 선언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과 성숙함 위에 구축된다. 학생 기자

들은 전문성과 윤리를 통해 언론의 가치를 입증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언론은 단순한 연습장이 아닌,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현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자"...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 개최

지난 4월 11일 오후 1시, '대학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학언론법 입법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정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대학언론인 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직 학생 기자를 비롯한 주간교수·간사와 교육부 대학규제 혁신추진단,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조사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석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학교 당국에 의한 편집권 침해, 줄어드는 학생들의 관심과 기자 지원, 재정난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학언론의 존재 기반이 없어지고 있는 지금,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을 마쳤다.



▲ 출처 : 대학언론인네트워크

이후 대학알리 김태섭 편집국장이 사회, 한국대학언론협회 오대영 회장이 좌장을 맡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윤희각 교수가 '한미 대학신문의 편집권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15년 차 한국 대학신문 편집권 갈등을 조사한 윤 교수는 재단이나 총장이 총장실을 거느린 재정부, 신문 들어가기, 편집장 해고 등의 보복을 당하는 현 사태를 지적했다.

전 세계 대학신문의 롤모델인 미국 대학신문조차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진보적 색채 대학신문에 대한 압박 심화, 학생 미디어 경보가 발령됐으며 대학신문 기자가 체포되고 있다. 이러한 압박과 예산 삭감에 대응해 독립하는 미국 대학신문이 증가 중이다. 지원금 삭감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보장을 위협할 우려 때문이다.

윤 교수는 학생 언론 자유 회보 및 보호를 위한 미국의 뉴 보이시법을 소개하며 "한국도 대학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언론 겸업 금지 △학생 언론인 불법 겸업 거부 △보복 금지 △대학신문 고문과 직원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법안 시행 주에서는 자신의 발언이 불법적으로 검열됐거나 검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검열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는 대학언론법 발의가 △대학언론 설치 및 언론 자유의 법적 근거 마련 △고사 직전 대학언론 현장에 긍정적 파급효과 △법시행시 대학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토대 마련 △한국 언론사적 큰 의미가 있다며 별제를 마쳤다.

이후 박호빈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회장, 윤수임 대구대신문 편집국장, 이다혜 송대시보 전 편집부장, 김세준 한국체육대학교 간사, 이기을 성공회대 미디어센터 전 센터장, 김범이 경기대신문 전 편집국장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전·현직 학생 기자로서 겪은 언론 탄압과 재정 불안정 문제를 나눴다.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추진단 채홍준 단장은 "대학과 언론의 자유 모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 우선순위가 충돌할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채 단장은 "학생이면서 언론이기도 하고, 동아리보다 더 발전된 성격의 기관이기도 하고, 언론인의 기능도 하고 있기에 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고민된다"며 "대학언론이 제도화된다는 부분에서는 환영이나, 자유로웠던 대학언론이 제도화되며 좀 어려워지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규환 입법조사관은 "대학언론은 입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학언론법 필요성은 이해하나, 법률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야 하고, 언론 내부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봉건우 위원장도 대학언론이 학교 조직으로 규정되면 학생 자치의 범주에서도 제외돼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도 대학언론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안정하며,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받는 경우는 더 많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외부 간섭이 최소화될 많은 대학언론의 독립적 활동이 보장되고, 이에 따른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나 대학언론법 제정이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하려는 기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대학언론인으로서 대학언론법은 당연히 환영이지만, 이에 따라 생겨날 여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대학언론법 발의 후 변화와 한계는?

대학언론법이 발의된다면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명확하다. 먼저, 학교 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학생 기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대학언론네트워크(대언넷)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까지 대학언론 탄압 사례는 밝혀진 것만 총 38건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면 발행·배포 중단(19건) △기사 삭제·검열(14건) △기자 해임·징계(11건) △재정 보조 중단(5건) 등 유형도 다양했다. 대학 본부가 신문 지면 발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불편한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해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간섭이 실제 존재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부당한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 기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이는 대학언론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학생 사회 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다. 대학언론은 학생, 교수 등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 대학언론법이 통과되면 학교의 간섭 없이 비판적 기사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 조선대학교에서 학생회 선거 부정 문제를 대학언론이 보도하며 실질적 변화를 이끈 사례도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이나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토론했을 수 있는 건강한 민주적 문화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도 만만치 않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이번 법안은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자치와 국가·지자체의 대학언론 운영 지원 조항 등 핵심적인 내용을 삭제한 '축소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법률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고, 실제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운영 안정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대학언론이 학교의 직접적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는 여전히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의 독립적 지원 체계가 법안에서 명확히 배제되면서, 학교의 예산 삭감이나 지원 중단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학교나 학생 자치 기구로부터 예산 지원이 모두 끊길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대학언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대학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법적으로 명시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시행 방안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학교가 편집권에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인사·운영·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 통제를 시도할 수 있다. 편집부 내 표준화된 교육 시스템이 부족하고, 도제식 교육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도 여전하다. 선배 기자가 떠나면 후배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인력난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 이는 대학언론이 단순히 법적 독립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 한국을 덮친 우울의 그림자, 우울증을 마주하다

2025년의 대한민국, 이 나라는 여전히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삶이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그들을 지탱해 줄 사회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누구나 '마음의 병'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졌지만, 정작 그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외면당하기 일쑤다. 우울증은 더 이상 특정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SNS에서 보이는, 흔히들 말하는 "나 빼고 다

잘 지내는 것 같아"라는 생각은 우리를 우울감에 잠식시킨다. 또한 일상 속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정신질환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다. 문제는 병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정의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점이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이 사회의 문화가 됐고, 고통을 호소하는 것조차 낙담함으로 치부되는 분위기는 여전하다. 감정에 대한 무관심과 자기 검열은 사람들을 더욱 침묵하게 만든다. 그 사이 무너져 내린 이들은 아무 말 없이 사라져 간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직장인,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우울감과 무기력, 불안 증세를 호소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이 중요한 시대지만, 정작 마음의 소리를 들어줄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울은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사람을 무너뜨린다. 우리는 그 침묵을 너무도 쉽게 지나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을 읽어 내려갈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의 정신은 건강하나요?"

## 대한민국은 지금 우울증 위험 국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울증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13만 명이 넘는다. 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약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감정이 무너진 사람들이 점점 병원을 찾고 있다는 건, 어쩌면 '이제는 정말 참을 수 없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우울증은 전 연령대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특히 청년층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 발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중 20.3%는 우울 증상을 경험했으며, 15.8%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수치이며,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다. 20대 여성의 우울 증상 경험률은 전체 평균을 훨씬 넘는 25.2%였다.

정신건강 문제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다양하다. 불안정한 고용, 학업과 진로에 대한 압박, 사회적 고립, 그리고 SNS를 통한 비교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미래 불확실성이 청년층 정신건강 악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우울증은 결국 자살률과도 연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살은 한국인의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이며, 10~30대에서는 자살이 1위 사망 원인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6.0명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치료 접근성도 문제로 꼽힌다. 지역별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관 수에 큰 차이가 있으며, 지방과 농어촌에서는 진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신과 방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증상을 느끼고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한 정신건강센터 관계자는 "초기 증상에도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상태가 악화돼서야 오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청년층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약 260개에 불과하며, 인구 대비 접근성이 떨어진다.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개인의 고통에 머물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1조 원에 달한다. 이는 질병 치료비뿐 아니라 결근, 생산성 저하, 이직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는 국가 미래 인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현재의 통계는 병원에서 진단 받은 사람들에 한정돼 있다. 아직 병원을 찾지 못한, 혹은 찾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우울증을 겪는 사람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의 확대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일상에서의 예방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출처: 연합뉴스

## '코로나 블루'와 '카페인 우울증'을 마주한 현대인

우울증을 겪어봤거나, 우울증에 빠진 동료나 가족을 본 적 있는가? 필자도 과거 우울증을 겪었던 때가 있다. 이렇게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은 주위에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다. 우울증이 흔한 병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흔히 우리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는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계속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현재는 치료제의 개발로 일상생활이 정상화됐지만, 과거 코로나의 장기화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이에 원격수업을 하며 코로나 직격탄을 받은 청소년들이 SNS 중독을 호소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전종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의 202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학생 비율이 전보다 약 9.3% 증가했다. 이러한 SNS 중독은 우울증과 거식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SNS는 소통하고 공유하는 즐거움 이면에 사용자의 총동적인 감정변화, 인지기능 저하, 비교로 인한 절망과 심리적 위축 등의 모습을 감추고 있다. 과도한 SNS 의존도가 결국 중독을 불러오고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우울증까지 불러올 수 있다. '카페인 우울증'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환은 젊은 세대층에서 주로 나타나며 빠르게 우울증 환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우울증은 불면, 과수면, 자살 충동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에 SNS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SNS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 만큼 확실한 대비가 필요하다.

2019년과 2020년에 발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0명 중 약 4명이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에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의 비율은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 우울증 환자를 줄이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적인 과제로 떠오르는 실정이다.



▲ 출처: 포토뉴스

## 흥터를 지나 웃음을 되찾기까지... 한 청년의 고백을 듣다 [인터뷰 - 익명, 22세]

Q. 우울증을 겪게 된 계기는.

A. 고등학교 때 가장 심하게 우울증을 겪었어요. 중학교 때는 전교관에 들 정도로 공부를 잘해서 자사고에 진학했지만, 점점 떨어지는 성적과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어요.

2학년이 되면서는 연인과의 이별뿐 아니라, 원치 않던 사건에 휘말린 뒤 소위 '일진' 들에게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저격당하며 사이버 불링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일진들은 제 계정을 태그하며 조롱과 욕설을 마구 달았습니다. 그중에는 패드립(가족을 모욕하는 언어폭력)도 있었는데, 저 때문에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들한테 조롱받았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하고, 방 안에서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학교에서는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었지만, 동아리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매주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과 회의를 억지로 이끌어야 했어요. 공부할 정신이 전혀 아니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죄책감이 들면서 부모님께 괜히 날을 세우기도 했어요. 결국 자해까지 하게 됐고, 샤워 중 뜨거운 물로 상처에 피가 맺힐 때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원래는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 일을 겪은 후로는 매우 소심해지고, 말수도 줄었죠.



▲ 출처: 고려대학교의료원

Q. 그 시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A. 우연히 어떤 아이들 그룹의 덕질에 빠지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인터넷에서 '사람은 애착할 대상이 있어야 살아갈 동력이 생긴다'는 글을 봤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다고요. 여전히 소심했고, 팔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고, 성적도 좋지 않았지만 매일을 살아갈 이유가 생기면서 자포 생각까지 했던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어요.

재수를 끝낸 추운 겨울 담임선생님과 마지막 면담 날, 선생님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시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대학 가서는 밝게 살아. 말도 좀 하고, 잘 살아라." 그 말이 저를 많이 움직였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엔 '나는 고등학교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다짐으로, 여러 동아리와 대외 활동, 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밝게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거나 대화하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지금 함께하는 동기들은 제가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정도로 잘 적응하게 됐어요.

Q. 우울증을 겪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저처럼 우울증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분들, 혹은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처음은 어렵겠지만, 억지로라도 어떤 단체에 소속되려고 해보세요. 소속감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보통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결국 사람 덕분에 다시 회복되기도 합니다. 소속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애착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게 사람이든, 연예인이든, 게임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어요. 그 대상이 당신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세상에 마음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우울증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낙담해서 겪는 문제도 아니고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정신질환을 절대 겪지 않을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통계는 다른 말을 한다. WHO에 의하면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우울증 환자는 3억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우리 주변의 가족과 친구, 혹은 자신도 우울의 그늘에 놓일 수 있다.

우울증을 비롯한 관련 정신질환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국인의 경쟁적인, 남과 비교하는 특성과 맞물려 본인을 더욱 고립시킨다. 또한 부정적인 사회의 시선도 겹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사회적인 편견과 무관심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우울증은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생화학적 변화와 복합적 스트레스

## 전문가들의 견해와 우리의 우울증에 대한 자세



▲ 출처: 연합뉴스

앞서 본 본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전문가들은 SNS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대처법을 여럿 제시했다.

광주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심리적 취약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 교수는 우울증 극복을 위해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자기 비하를 줄이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존스홉킨스대학교의 타마르 멘델 교수는 "우울증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일상 기능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며 "우울증 중세가 의심될 경우 가능한 빨리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하루 중 규칙적인 수면과 운동, 인간관계 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 외과 의사 총장 지베 뤼시 박사는 "사회적 고립감이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개인적 약함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병"이라는 점을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여러 조언을 하였음에도,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SNS와 정신적인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한국에서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 및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제2차 정신건강 복지 기본계획'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지원 체계 구축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계획에는 학교 기반 정신 건강 프로그램 확대와 정신질환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으로는 실용성이 떨어지는 법들이라는 지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직접 느끼는 부담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체로 아직 한국에서는 '우울증은 나약한 사람이나 겪는 것'이라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널리 남아 있다. 이러한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도움 요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민성길 연세대학교 정신과 교수는 이에 대해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환자들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같은 편견은 많은 우울증 환자를 방치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이런 편견을 없애는 움직임 또한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호주 중심으로 한 연방국 국가들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본받아 한국에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환자들이 편견 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개인과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따라서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듯, 마음이 아플 때도 치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일이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 우울증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겨야 할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정신 건강은 육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기반이다.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아픔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

우울증과 같은 질병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 대신, 나도 언제든 겪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울증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일 것이다.

## 주간칼럼



## 다시, 마음을 잇는 계절

주간 방미영 교수

한바탕 흥역을 치르고 5월을 맞이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불린다. 캠퍼스에는 봄꽃이 뿜어내는 향기가 가득하고, 거리에는 가족 나들이 인파로 다시 활기가 넘치고 있다. 이처럼 찬란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관계와 연결의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이어지며 '가정'이라는 단어가 유독 가까이가오는 시기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5월이 따뜻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아프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상처를 겪은 사람들, 혹은 물리적·심리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정의 달'은 때로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더 깊이 느끼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가정의 달을 '누구를 챙겨야 하는 달'이 아니라, '어떤 관계를 돌아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기념일의 목록에 따라 감사와 애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잠시 잊고 지낸 소중한 관계들에 대해 되새기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다.

가정이라는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혈연 중심의 전통적인 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은 점차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생물학적 연결이 아닌, 정서적 유대와 선택을 통해 맺어진 관계들도 의미 있는 가족이 된다.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누구보다 깊은 신뢰와 소속감을 느낀다. 이처럼 마음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토니 모리슨, 오프라 윈프리와 더불어 미국 사회에서 깊은 울림을 전해온 흑인 여성 작가 마야 안젤루는 "우리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른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더욱 깊고 풍부해진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누군가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목혀둔 감정에 대한 사과, 그리고 고마움을 담은 진심 어린 표현은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주는 힘을 가진다.

대학생들에게도 5월은 의미 있는 시기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미래를 위한 준비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가끔은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부모님께 전하는 안부의 말, 어릴 적 친구에게 보내는 짧은 메시지, 가까이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말 한마디 나누

지 못했던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는 작지만 깊은 울림을 남긴다. 그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지고, 삶은 더 풍성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지금까지의 시간 속에서 견뎌온 자신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어말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연결이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곧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정의 달은 단지 '감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맺어온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다. 단절되었던 마음을 잇고, 무뎠던 감정을 깨우며, 여전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새롭게 느껴보는 시간이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큰 힘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든다.

5월, 생명의 기운이 온 세상에 퍼지듯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생기가 다시 피어나기를 바란다. 관계의 본질은 거창한 행동에 있지 않다. 관심을 표현하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지켜보는 일, 그런 소소한 연결들이 결국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

다시, 마음을 잇는 5월이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표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작은 조용한 움직임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든다.

| 기자의 눈 |

## [이등병의 편지 ②] 추위와 고됨 속에서 재미와 보람을 느꼈던 훈련소 생활

1, 2월의 훈련소 기간은 사실상 추위와 눈과의 사투였다. 영하 20도를 웃도는 강원도 철원의 추위는 실로 무지막지했다. 방심한 채 방한용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나간 첫 야외 훈련에서 느낀 추위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다.

쟁하고 돌아치는 바람은 귓가에서 날뿔이 부딪치는 소리를 낼 정도로 강했다. 얼마나 매섭게 부는지 나를 비롯한 훈련병들은 품을 기간히 두지 못한 채 바람에 밀려 기우뚱거리곤 했다. 귀를 비롯해 밖에 노출된 살갗에는 정말 쪼개지는 고통이 이어졌고 손과 발은 고통을 넘어 후각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후퇴계 신고식을 치른 후에는 비니, 가죽장갑, 귀마개, 방한 양말, 안면 마스크 등 방한용품과 입을 수 있는 모든 옷을 껴입고 다녀야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힘든 추위였

다. 훈련을 마치고 나면 눈겨울과 눈썹에 낀 서리를 털어야 했고,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쌓여져 나오는 콧김과 입김에도 적응해야 했다.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할 때나 눈발에 누워 훈련할 때는 수 개의 핫팩으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울 정도였다.

폭설은 답이었다. 아주 큰 일자의 함박눈이 일주일여 한 번쯤 내려, 제설 '작전'에 항상 동원되곤 했다. 지난 설에는 4일 내내 폭설이 내려 연휴 내내 제설을 해야 했으며 방금 눈을 쓸어낸 곳이 실시간으로 원상 복구되는 진풍경을 보며 헛웃음을 짓곤 했다.

강원도의 추위와 고됨 훈련이 계속된 훈련소 생활은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동시에 재미와 보람을 충분히 느끼기도 했다. 같이 생활하는 12명의 소대원과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며 훈련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 과정은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들과 배가 찢어질 정도로 웃고, 서로에게 기대 추위를 피하며 쌓아온 즐거운 추억들은 고됨을 잠시나마 잊게 해줬다. 그리고 덕분에 훈련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깊은 전우애로 똘똘 뭉친 우리분대는 각개전투 훈련에서 최우수 분대로 뽑혀 포상 휴가를 받기도 했다.

훈련소 생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러 낭만과 감성을 경험하기도 했다. 파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다 같이 침상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주말의 오후, 모두가 잠든 시간 생활관을 가로지르는 취침등의 생리소름한 불빛, 다 같이 오려진 발라드 노래를 부르며 청소하던 때, 밤하늘을 가득 채웠던 군화 닦는 소리까지. 돌아켜 보니 힘든 기억만큼 즐거웠던 기억도 한가득이 있다.

저녁마다 고개를 들고 보름달을 쳐다보던 때도 기억난다. 그곳의 달은 마치 1.5배 확대를 해 놓은 것처럼 크고 섰했다. 달의 무늬가 너무 확연하게 보여, 대체 토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곤 했다. 불침번 근무를 할 때,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시간의 경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나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보며, 손톱을 깎은 달이 어느새 손톱만큼 남은 것을 보며, 군대에서의 시간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커다란 달은 행군하는 날도 여전했다. 정월 대보름이라 그런지 유달리 밝았던 그 달은 20km 야간 행군할 때도 여지없이 위용을 뽐냈다. 누군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일 정도로, 부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로 거대했다. 나는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은 정월 대보름의 달을 동지 삼아 그 빛이

비치는 행군길을 묵묵히 걸었다.

힘든 만큼 재미있고, 인격체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어 보람찼던 2달간의 훈련소 생활이었다. 정이 든 탓인지 훈련소 수료가 가까워질수록 아쉽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 훈련소에서의 마지막 날에 동지들과 밤이 깊어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대화했던 밤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자대 전속을 위해 훈련소 동거기 하나둘씩 떠날 땐 고티이 쩡하기도 했다. 문을 나서며 불과 두 달 전에 똑같이 이 문 앞에서 있던 과거의 내가 겹쳐 감회가 새로웠다. 과거의 나와 비교해 봤을 때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전혀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준혁 객원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수습의 눈 |

## 재보궐선거로 보는 잊어버린 우리들의 '권리'

"이번 재보궐선거에 투표했어?" 캠퍼스 내에서 만난 동기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비슷했다. "언제 했었어?", "몰랐는데?" 혹은 "투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와 같은 냉소적인 반응이었다.

재보궐선거는 본래 임기가 남은 공직자의 부재로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중요한 선거다. 하지만 이번 선거 전체 투표율은 26.27%로 매우 낮았다. 특히 서울 구로구 청장 선거 투표율은 25.9%, 부산 교육감 선거는 22.8%에 불과했다. 이러한 무관심은 단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는 왜 우리의 권리를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효능감' 부족이다. 자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믿으며, 정치라는 단어 자체에 피로감과 냉소를 느끼고 있다. 게다가 취업 준비, 학점 관리 등 현실적인 어려움 속 정치까지 관심 가질 여유조차 없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정치에 대한 냉소와 피로감이 결합된 결과다. 대학생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많다. 뉴질랜드는 종교교 시절부터 정치 참여와 시민교육을 실시한 전통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효능감을 높이고, 실제로 20~30대 청년 정치인이 대거 진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37세에 총리가 된

현실을 즉각적으로 바꿀 중요한 기회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지역사회의 복지, 교통, 주거 환경 등 대학생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을 결정한다. 우리의 무관심 속 선출된 인물이 결정한 정책은 결국 우리의 삶에 바로 영향을 준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대학생들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가 많다. 뉴질랜드는 종교교 시절부터 정치 참여와 시민교육을 실시한 전통이 있다. 특히 대학생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효능감을 높이고, 실제로 20~30대 청년 정치인이 대거 진출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37세에 총리가 된

'저신다 아던'이 있다. 청년 정치 리더가 국가 정책과 사회 변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잊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현실적인 변화를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면 어떨까? 캠퍼스 내 투표소 설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와 같은 구체적인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대학교 학생회는 물론, 우리 자신도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권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미래에 대한 결정권도 잃어버린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당장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친구와 함께 정치적 이슈를 이야기하며 작은 행동부터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 당신의 참여가 바로 현실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 수습의 눈 |

##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고, 과연 이게 진실일까?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어떤 생각은 가볍게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생각은 뇌리에 박혀 빠지지 않기도 한다. 내가 무심코 떠올린 생각과 나도 모르게 믿어버린 것들이 어느 순간 현실이 돼 나타난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문장이 담고 있는 신비한 원리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Law of Attraction)이다.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나 긍정적 사고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핵심은 우리의 무의식과 관련이 있

다. 실제 우리가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 무의식에 각인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생각은 단순히 감정의 부산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부정적인 생각이 무의식 속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아무리 겉으로 긍정적인 '책' 해도 법칙은 작용하지 않는다. 무의식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기록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치유

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불확실한 미래 속 불안과 무기력함에 우리는 종종 지쳐버리곤 한다.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고, 원하는 결과는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이 방향을 잡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느끼는 이런 감정 조차 사실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밝게 빛날 나의 미래, 행복한 삶을 바라는 마음의 증거다. 그러나 잠재된 불안은 결과적으로 행동을 제약하고, 스스로 가능성을 차단해 버릴지 모른다. 지금의 고단함이 무

의식 속에 잘못 자리 잡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야 한다.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지금의 나도 충분히." 이때야 비로소 마법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한다.

내가 나를 믿기 시작할 때, 세상도 나를 믿는다. 인생은 결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무의식에 얼마나 깊게 새기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내 뜻대로 흐를 수 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은 외부 환경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끌어당김의 법칙은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내면에서 삶을 주도하며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본질적인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인생의 방향키는 언제나 내 손안에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끌어당기고 싶으신가요?" "끌어당길 준비가 되셨나요?" 변화는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을 것이다.

송정아 수습기자  
(songjeonga0328@skuniv.ac.kr)

만/파/식/적

## 기사를 적을 땐 아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듯이

아동학과 3학년인 필자는 이번 학기에 '아동 관찰 및 행동연구'라는 수업을 듣는다. 이 수업에서는 아동 관찰 시 객관적 기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배운다. 학보사 기자답게도 수업을 들으며 객관적 아동 관찰 기록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기사 작성의 기본 윤리가 유사하다는 재밌는 생각이 들었다.

첫 번째는 객관성이다. 필자는 수업에서 관찰 대상자가 행동을 한 것만을 기록해야 한다고 배웠다. 아동 관찰 시 "아이가 좋아했다"고 적는 것은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된 문장이다. 반면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깔깔 소리 내 웃었다"는 감정 해석 없이 사실만을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기사 작성 시에도 작성자의 주관을 배제한 사실 기반 문장을 적어야 한다. 기자는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을 정확히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장에 은근히 자기 생각을 녹여 독자의 판단을 대신하거나 유도해선 안 된다.

다음으로는 되도록 표준화된 수치를 사용하며 부사는 주의해서, 형용사는 적절하게, 모호한 부사와 형용사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 관찰 기록에서는 "많이 울었다"는 표현보다 "오전 10시경부터 약 5분간 소리 내 울었다"는 구체적인 기술이 훨씬 유리하다. 시간이 지난 뒤나 제작자가 봐도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사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다"는 추상적 표현보다 "현장에 모인 약 300명의 시민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는 식의 구체적 묘사가 필수적이다. 기록을 읽는 이가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구체성이 중요한 것이다.

관찰된 행동을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록하는 것도 아동 관찰 기록 주의점 중 하나다. 기사 작성 시 육하원칙에 맞게 간결하고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도 기초 중의 기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통점은 윤리적 책임감이다. 아동 관찰에서는 관찰 대상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며, 기록은 연구 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는 기사 작성 언론 윤리와도 맞닿아 있다. 기사 역시 취재 대상자의 동의, 인권 보호, 정보의 목적과 사용 금지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특히 아동 관련 기사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관찰과 기록은 진실을 담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특히 아동의 행동을 연구하거나 사회 현상을 기사로 전달할 때, 기록의 신뢰성은 결과의 가치를 좌우한다. 관찰자와 기자 모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록하는 사람이다. 주관이 개입된 기록은 왜곡을 낳고, 왜곡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아동을 관찰하는 연구자든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든,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록'을 위한 고려 사항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고 훼손하지 않을 때, 그 기록은 비로소 의미가 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사설

## 무전공인데 등록금은 '공대' 수준... 논란이 계속되는 무전공제 등록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사회 변화에 융합형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 가지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무전공제' 정책은 기존 대입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무전공제는 대학 신입생이 입학 당시 전공을 결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양한 분야의 기초 교육을 이수한 뒤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춰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는 의학이나 예체능 같은 일부 특수 계열 제외, 전공 선택 범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단과대학이나 계열의 제한 없이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 I', 다른 하나는 소속 단과대학 또는 계열 내에서만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 II'다.

이러한 무전공제 도입 후 무전공 계열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2025년 수도권 사립대 무전공제 등록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43개교 중 현황 파악이 어려운 19개교를 제외한 24개 대학 중 66.7%에 해당하는 16개 대학이 공학계열에 맞는 등록금을 무전공 입학생에게 적용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10개 대학은 공학계열 등록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으며, 이는 대학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등록금을 반영한 것이다.

전공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무전공 학생들이, 실험실이나 특정 전공 전용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학교 내에서 가장 비싼 단과대 등록금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교연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공학계열로의 전공 선택 가능성과 무전공제도 도입으로 신설 교과과정 운영, 교수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추가 비용 증가와 중도 이탈로 인한 기회비용 등을 근거로 등록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대교연은 무전공 입학생에게 근거 없이 고액의 등록금을 적용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학계열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거나 비싼 등록금을 부과한 대학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교육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 공고 시 무전공 입학자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함께 공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무전공제도가 학생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면,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입생들이 아직 전공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가격의 등록금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다. 무전공제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등록금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소정 수습기자 (2022215046@skuniv.ac.kr)

오늘의 책

시탕과 술 냄새 사이의 기억, 인간이라는 모순에 대하여 - **모순** 양귀자



▲ 출처 : 교보문고

‘모순’. 필자는 이 단어를 7살 때 처음 책에서 봤던 기억이 있다. 그 책은 ‘무엇이든지 뚫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는 방패’에 대한 이야기였다. 꽤 빠른 나이에 모순이라는 단어를 습득했다는 뜻처럼 그 단어를 오랫동안 두고두고 생각했다. 23살이 된 지금 책 제목으로 다시 마주한 모순이라는 단어. 책을 펼치지 않고 프린팅된 제목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이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겨야 할 인간의 모순을 가장 가깝 없이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이 책은 주인공 안진진이 두 남자 사이에서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갈등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굵은 줄거리는 그 두 남자와의 관계지만, 필자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안진진의 복잡한 심리에 더 마음이 갔다. 결혼이라는 선택을 앞에 두고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과거로 향한다. 가족, 특히 아버지와의 기억은 그녀 안에 깊게 박혀 있었다. “아버지는 처음에 예민했고, 자신에 대한 모독을 가장 못 견뎌 한 사람이었다고.” “해 질 녘에는 절대 낮선 길에서 헤매면 안 돼. 그때마다 하늘이 저쪽부터 푸른색으로 어둡아 내리기 시작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프거든. (...) 그러면 그만 견딜 수 없을 만큼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거기가 어디든 달리고 달려서 마구 돌아오고 싶어지거든. 나는 끝내 지고 마는 거야...” 남들에게, 아니 남들이라고도 할 수 없는 친척들에게 아버지는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고 가족의 삶을 파헤쳐 만든, 무능력한 가장이었다. 하지만 진진에게 그는 시장에서 어머니가 하루 종일 고생해 번 돈을 슬쩍 가져가면서 딸에게 사랑값을 챙겨주는, ‘꿀꺽’ 있는 신사였다. 그의 이중적인 모습 속에서 진진은 오히려 모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자라났을

것이다. 남편으로서의 최악일지 모르지만, 아버지로서의 모순은 쪼고 강렬하게 각인돼 있다. 감정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진진이 어느 날 집을 나간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과 진진의 어머니가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외갓집에서는 그를 감싸는 모습은 모두 이해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사랑과 원망이 교차하고, 그 안에서 진진은 어른이 되어간다. 시간에 맞춰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남자, 나영규. 자유롭게 바람처럼 흘러가며 살아가는 김장우. 안진진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녀에게 김장우는 DNA처럼 본능적으로 끌리는 존재일까. 아니면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 위에 선, 안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나영규를 선택할까. 그녀가 맞닥뜨린 이 선택은 단순한 연애의 갈림길이 아닌,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가온다. 인간은 본래 모순적인 존재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인간이 하루하루 반복하며 살아가는 선택과 실수, 그것이 바로 이 소설의 제목이자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하는 묵직한 단어, ‘모순’이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오늘의 장소

커피와 꽃 사이의 휴식 - **카페 사루**



꽃을 선물 받는 것, 어떤 기분인가? 필자에게 꽃다발이란 스스로 선물하기는 좀 그렇지만 선물로 받으면 기분 좋은, 그런 존재다. 평범한 삶 속에 행복, 꽃 한 송이를 선물하는 카페가 있다. 약수역 2번 출구에 내려 4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사루’다.

골목 어귀에 있는 3층으로 된 카페다. 들어가니 카페 곳곳에 꾸며진 꽃들과 강아지 ‘달이’가 맞이해 줬다. 2층으로 가 자리를 잡고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했다. 내부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금방 직원분께서 메뉴를 가져다주셨다. 매장에 들어갈 때부터 직원분은 꽃을 포장하고 계셨고 여기가 꽃집인지 카페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날마다 준비된 꽃 중 손님들에게 어울리는 꽃을 선물해 주신다. 필자는 빨간 백합을, 같이 방문한 일행은 노란 백합을 선물 받았다. 예쁜 꽃을 선물 받으니, 마음이 들뜨는 듯했다. 커피 맛집으로도 소문이 난 곳이지만 아쉽게도 필자는 커피를 마시지 못해 ‘초콜렛’을 마셨다. 이 기사를 읽고 사루에 방문하는 학우가 있다면 커피 후기를 어딘가에 공유해주길 바란다. 음료 가격대는 6천 원에서 7천 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 조금 비싸

다고 느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카페에서 즐기는 여유와 행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값어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다. 3층은 야외 좌석으로, 편안한 의자와 해먹이 놓여있다. 필자는 오후 5시경에 방문했는데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해먹에 누워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니 더할 나위 없는 하루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이 카페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조금은 상기된 말투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나간다는 것이다.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공간에서의 시간이 그들에게 휴식 혹은 행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범한 하루에 휴식이 필요하다면 카페 사루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김규민 수습기자 (kyum7158@gmail.com)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 53 1층
- 운영시간 : 매주 일~수 12:00~21:00, 매주 목~토 12:00~23:00

오늘의 음악

급변의 시대를 경험한 이들이 들려주는 오늘을 위한 음악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현재 세상은 국내외 여러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급변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마치 과거의 전쟁과 위기를 그대로 현재에 가져다 놓은 것 같다. 오늘날의 우리처럼 과거의 이들도 저마다의 혼란을 겪었다. 그들의 음악을 통해 현재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금을 살아갈 힘을 얻길 바란다.



▲ 출처 : 바이브

♪ 〈Hotel California〉 - Eagles

“ASo I called up the Captain, Please bring me my wineHe said, We haven’t had that spirit here since 1969 You can check out any time you like, but you can never leave”

1969년 히피 문화가 절정에 이른 후아메리카드림은 점차 쇠락해 갔다. 밴드는 ‘Spirit’이란 중의적 단어를 사용해 1969년 이후 본래의 찬란함을 잃어버린 미국 사회를 영혼을 잃었다며 비판한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냉소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란 물음을 자아내는 곡이다.



▲ 출처 : 바이브

♪ 〈Virtual Insanity〉 - Jamiroquai

“Futures made of virtual insanity, now Always seem to be governed by this love we have Oh, now there is no sound for we all live underground”

노래의 제목인 ‘가상의 광기’는 미래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과학 기술들을 직설적으로 비판한다. 곡은 고빠가 풀린 기술 앞에서 인간의 통제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지하에 산다고 표현한다. 이는 과거의 곡이지만, AI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술만능주의에 빠진 미래에 대한 환상을 경계하고 기술의 윤리를 고민하게 만든다.



▲ 출처 : 바이브

♪ 〈Karma Police〉 - Radiohead

“Karma police I’ve given all I can It’s not enough”

이 곡은 ‘최선을 다해도 충분하지 않다’며 능력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현대 사회를 비판한다.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현대 사회는 기술혁명의 찬란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다. 그런 ‘카르마’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고민과 성찰을 담은 곡들에 귀 기울여 보자.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일상이 캔버스로 변하고 그 위 ‘주인공이 된 나’ - **워너 브롱크호스트 : 온 세상이 캔버스**



3월 21일, 서울 그라운드 시소 서촌에서 ‘온 세상이 캔버스’ 전시회가 열렸다. 작가인 워너 브롱크호스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활동하는 미술가로 현재 화제다. 거친 캔버스 위에 작은 인물을 그려 넣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SNS를 통해 폭발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는 작품을 평범한 일상 속을 포착해 캔버스 세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특히 작가는 자신의 두 자녀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그는 작품에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세상을 향한 무한한 호기심을 담았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일상 속 풍경 이야기를 풀어내

모든 것에 소중함을 의미를 부여한다. 전시는 총별로 각각 다른 테마를 지녀 층을 오를 때마다 세계에 들어가게 된 느낌을 준다. 1층은 관람객의 일상 속 공간을 재해석한 공간으로,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친근한 분위기다. 2층은 착시효과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현실과 비현실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꾸며져 있다. 3층은 아담하면서 아름다운 녹색의 골프장과 운동장으로 꾸며져 있다. 이는 관람객들에게 마치 골프장에 온 듯한 느낌을 주며 연신 감탄을 내뿜게 했다. 4층은 바다와 수영장이 테마로, 이전 층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현실감을 주기 위해 바닷소리의 효과까지 넣어 시원함을 더했다. 넓은 천장을 사용하고 주변 가구를 수영장으로 디자인하는 등 세세한 연출에 신경을 써 관람객들이 마치 휴양지에 온 듯한 현실감을 더했다.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는 많은 인파가 몰려 30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흔했다. 이는 사람들에게 전시회의 인기를 직접적으로 실감케 한다. 이처럼 많은 관람객이 오는 이유는, 전시가 예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기 때문이다. 작품들은 평소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게 한다. 많은 의미가 담긴 작품이지만 간단한 그림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끈다. 대부분의 관람객이 인증사진을 남기려는 모습은 전시회장을 북적이고 활기 넘치게 했다. 작가는 층마다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기며, 관람객들의 순수한 상상력을 끌어낸다. 관람객은 하나의 테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색다른 테마를 보며 다양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결국 단순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을 생각하도록 한다. 각각의 작품은 우리가 두꺼운 캔버스 위 주인공이 되게 한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점은, 각 작품이 단지 그림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비추는 하나의 장면처럼 다가온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캔버스 위 주인공이 되는 상상을 하며 작품을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소영 수습기자 (sozoro1119@skuniv.ac.kr)

- 전시기간 : 2025. 3. 21. ~ 2025. 9. 14.
- 전시장소 : 그라운드 시소 서촌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6길 18-8
- 관람시간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시~19시
- 관람비용 : 3월 21일~5월 31일 18,000원 / 네이버 사전 예매 할인 20% 6월 1일~7월 31일 14,400원

오늘의 영화

스승과 제자의 치열한 격돌 - **승부 (2025)**



▲ 출처 : 네이버영화

1900년대 후반, 대한민국의 국민 스포츠로 불릴 만큼 인기가 있던 바둑은 매일 TV에서 바둑 중계가 흘러나왔을 만큼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초등학교부터 노인까지,

학교 복도와 동네에는 늘 바둑판이 있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 바둑은 조훈현 9단을 중심으로 황금기를 누렸다. 영화 〈승부〉는 1989년 중국의 바둑 강자 섭위평 9단을 꺾고 세계 챔피언에 오른 조훈현 9단, 국민 영웅의 탄생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승부〉는 조훈현 9단과 그의 제자 이창호 9단의 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스승 조훈현 9단의 눈에 들어 그의 제자가 된 이창호 9단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창호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며 차분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스승의 수를 따라잡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부터 제자 이창호가 조훈현을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대국은 스승과 제자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기사의 자리를 둔 경쟁자의 ‘승부’가 된다. 조훈현과 이창호의 대국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바둑판 위에서 주고받는 수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과 감정이 녹아 있다. 단순히 승리하고 싶다는 욕구를 넘어,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에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조훈현은 국민이 만든 영웅이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기에 제자에게 패배하는 것은 단순한 패배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반면, 이창호는 조훈현이라는 이름을 넘어 실 때 비로소 자신이 진정한 기사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기에 두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 바둑 규칙을 잘 몰라 영화를 이해하기 어려울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감독의 말을 전하고 싶다. 〈승부〉의 김형주 감독은 “저 또한 바둑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관객이 몰라도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화는 복잡한 전문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자막과 대사의 맥락으로 관객을 이해시킨다. 바둑판 위 승부는 이해하지 못해도 조훈현과 이창호의 감정과 갈등 끝에 맞이하는 성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서로를 넘어서야만 했던 두 사람의 서사를 다루고 있는 영화 〈승부〉는 바둑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즐겁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정 수습기자 (2022215046@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한국판 아테바요르’ 정승원, 친정팀 대구에 비수

FC서울 소속 정승원이 친정팀 대구FC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한 데 이어 도발적인 세리머니를 펼쳐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3월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펼쳐진 ‘하나은행 K리그1 6라운드’에서 FC서울이 대구FC를 상대로 3대 2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결과로 서울(3승 2무 1패)은 시즌 3승째를 기록하며 대전전 나시트즌에 이은 2위로 올라섰다. 반면 대구(2승 1무 3패)는 6위에 머무르며 아쉬움을 삼켰다. 경기는 전반전 제시 린가드가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하며 홈팀 서울이 앞서나갔지만, 요시노와 정지인의 득점으로 대구가 2대1로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후반 90분 과거 ‘대구’의 아이돌로 불렸던 정승원이 환상적인 발리슛 득점을 터트리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득점 직후 정승원은 원정석으로 달려간 뒤 대구 팬들을 향해 도발적인 세리머니를 펼쳤는데, 이것이 논란을 빚었다. 정승원의 세리머니 이후 FC서울의 김진수를 비롯한 일부 서울 선수들이 전소력으로 달려가 정승원을 말리기도 했다. 화가 난 대구FC 선수들이 정승원을 밀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벤치클리어링 사태까지 발생했다. 정승원의 세리머니는 흔히 ‘아테바요르 세리머니’로 불린다. 아테바요르 세리머니란 2009년, 잉글랜드 맨체스터시티 소속이었던 공격수 에마누엘 아테바요르가 친

정팀 아스날을 상대로 골을 넣고, 아스날 응원석으로 전력 질주하며 도발한 세리머니에서 유래한 것이다. 정승원은 2016년 대구FC에서 프로 데뷔 후 2021년까지 몸담았다. 정승원은 뛰어난 실력과 수려한 외모로 대구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구단과의 연봉 협상 문제, 타 구단 이적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이적 후 SNS상에서 대구FC를 조롱한 사진 등으로 대구와의 관계가 파국을 맞았다. 이후 대구 팬들은 정승원이 경기장에 모습을 보일 때마다 불평한 심기를 드러냈고, 정승원 역시 그에 대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정승원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도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적 후 대구와의 경기마다 골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대구 팬들에게 아무도 많이 들었다. 골이 들어가 너무 기뻐서, 대구 팬들에게 정승원이라는 선수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라고 말했다. 박창현 대구FC 감독은 “대부분의 선수가 친정팀 상대로 세리머니를 자제하지 않나. 동정 상황에서 굳이 원정석까지 달려가 세리머니를 한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견해를 전했다. 반면, 김기동 FC서울 감독은 “지속적으로 정승원에게 비난을 가하는 대구FC 팬들에 대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감정이었다”라며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관중’에 대한 비선



▲ 출처 : 스타뉴스

사회 행위’ 규정에 따르면, 해당 규정 위반 시 선수에게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전 정지 및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연맹은 정승원의 세리머니에 대해 관중에게 욕설 등의 행동을 없앴고, 손을 귀에 대는 제스처를 취한 것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 대구FC 팬들이 물병을 투척하거나 관중석으로 내려가는 등의 소요 사태로 번지지 않았기에 최종적으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호성 수습기자 (hosung@skuniv.ac.kr)